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에 의한 명예 훼손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바람직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바람직한’, ‘윤리’ 등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 ① (가) : 도덕 현상의 인과를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② (가) :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③ (나) :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이다.
 ④ (나) :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진인(眞人)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때 때문이다.
- 을: 현자(賢者)는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 ① 갑: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다.
 ② 갑: 예법(禮法)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③ 을: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
 ④ 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갑과 을: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부조화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닮기에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은 이성(理性)의 아름다움을 닮게 되고,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하여 화가가 침상을 그린다. 화가가 그린 침상은 침상의 원형과 닮았지만 침상의 원형은 아니다.

- < 보기 >
- ㄱ.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ㄴ.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한다.
 - ㄷ.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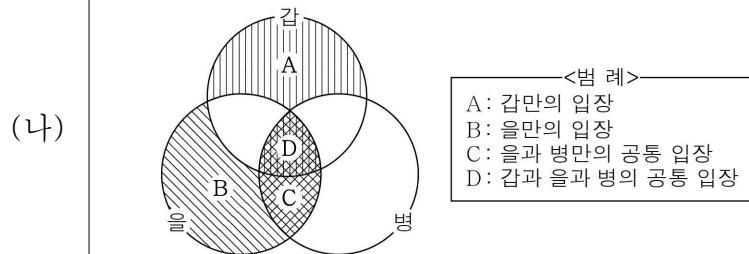
‘하루 2만 원으로 행복 찾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등학생 A는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읽을지, 소문난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지 고민 중이다.

- ①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끼세요.
 ②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쾌락의 질을 고려하여 책을 읽으세요.
 ③ 어느 선택이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인지 우선 판단하세요.
 ④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하세요.
 ⑤ 질적 쾌락보다 양적 쾌락 증진을 위해 풍족한 식사를 하세요.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가)	을: 인간의 많은 활동들은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병: 나무가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고유의 선을 지니므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 보기 >
- ㄱ. A: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B: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ㄷ. C: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갑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ㄹ. D: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고 3

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 ~ ⑤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일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악 금지의 원리를 준수하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나) 성적 관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①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보며, ②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③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④ 부부간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와 (나)는 모두 ⑤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⑦ ② ⑨ ③ ⑩ ④ ⑪ ⑤ ⑫

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율 주행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자율 주행 3단계에서는 자율 주행 시스템에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동공 상태와 같은 생체 정보 및 질병 이력과 같은 의료 정보를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하고, 주행이 끝나면 해당 정보들을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갑: 안전을 위해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 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될 때 사회적 안전이 보장됩니다.

* 비식별 조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 ① 비식별 조치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
②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도 되는가?
③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되는가?
④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하는가?
⑤ 자율 주행 시스템에 운전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군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군주가 이익을 밝히면 선비와 백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을: 무명(無明)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밝음[明]을 일으킨다면, 무명이 소멸되고 행(行)이 소멸된다. 결국에는 생로병사와 근심·슬픔·번민까지 모두 소멸된다.

< 보 기 >

- ㄱ. 갑: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사욕(私欲)을 따르기도 한다.
ㄴ. 갑: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가 아니다.
ㄷ. 을: 누구나 계정혜(戒定慧)를 닦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ㄹ. 갑과 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도(道)에 어긋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召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을: 사람의 성(性)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 이에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충족하게 하였다.

- ① 갑: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② 갑: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③ 을: 태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④ 을: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
⑤ 갑과 을: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

10.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입니다.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 균형은 이를 수 있습니다.



- ① 갑: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 연맹에 일임해야 한다.
② 갑: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을: 국제 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④ 을: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⑤ 갑과 을: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성현(聖顯)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반면, 비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이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는 그 사람의 개인적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한다.
- ②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같다.
- ③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없다.
- ④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
- ⑤ 비종교적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12.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 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일종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대전제</td> <td style="width: 60%;">인간에게 해악을 초래 하는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td> <td style="width: 25%;">+ 소전제</td> <td style="width: 10%;"><u>㉠</u></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결 론</td> <td colspan="3">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td> </tr> </table>	대전제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 하는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u>㉠</u>	↓				결 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제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 하는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u>㉠</u>										
↓													
결 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
- ②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 ③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④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 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13.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 런	
<p>하나의 민족이므로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넘어 통일에 대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쟁 위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자유의 억압은 남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사라짐은 물론 경쟁적으로 지출하던 군사비를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할 수 있고, 시민적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 모두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에 통일 공화국에 대한 분별 있는 애국심이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p>	

- ① 통일은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애국심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
- ② 통일 편익이 통일을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④ 통일은 지리적 거주 공간 확대 이외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 ⑤ 통일 국가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다.

1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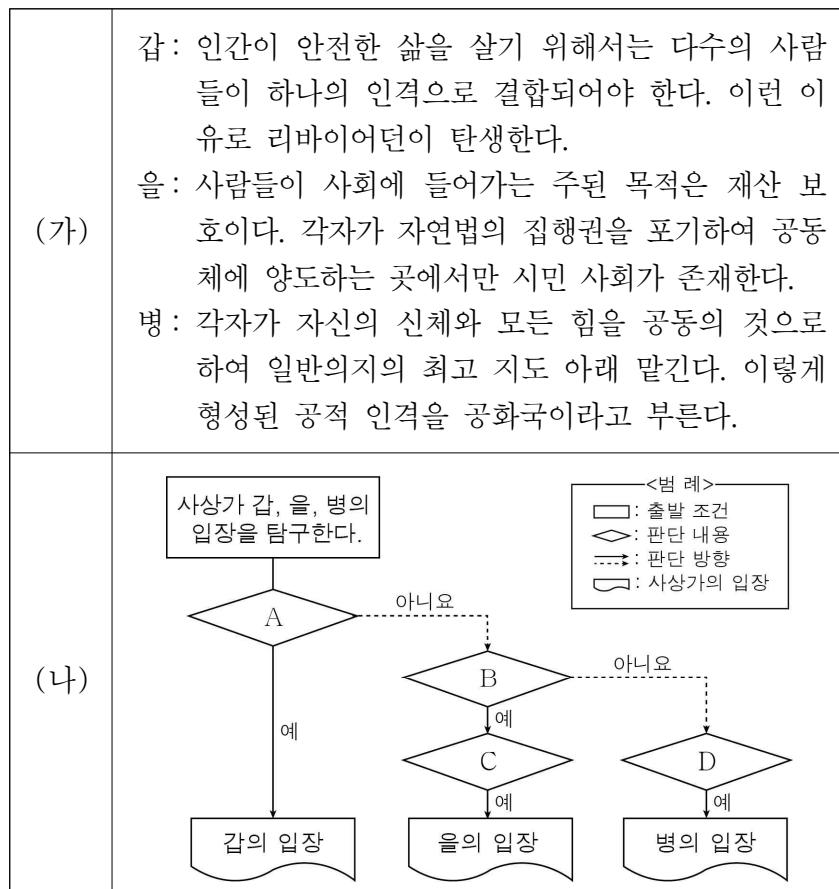
갑: 윤리적 육식은 가능하다.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은 자연의 먹이 사슬에 노출된 동물 보다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로우며, 인간은 동물 복지라는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윤리적 육식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잘못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모든 유정(有情)적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갑: 식생활의 윤리성 평가에서 동물 복지는 고려 요소이다.
ㄷ. 을: 인간 이익만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다.
ㄹ. 갑과 을: 고통을 가중하는 축산 방식은 윤리적이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ㄴ. B: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는가?
ㄷ. C: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ㄹ. D: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저해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을: 소유 권리론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원리들이다.

- <보기>
- ㄱ. 갑: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ㄴ. 갑: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한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 ㄷ. 을: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ㄹ. 갑과 을: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된 이유는 문화 상품 자체의 속성에 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관객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영화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 적극적으로 사유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문화 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듦다.

- <보기>
- ㄱ. 문화 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 ㄴ. 문화 산업은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은 확대한다.
 - ㄷ. 문화 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획된다.
 - ㄹ. 문화 산업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전통 윤리학은 타인의 권리 존중, 불의의 개선 등을 강조해 왔다. 의무의 대상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 역시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로까지 확대되었다.

- ① 현세대의 책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한다.
- ② 현세대는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③ 인간은 현대 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다.
- ④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이다.
- ⑤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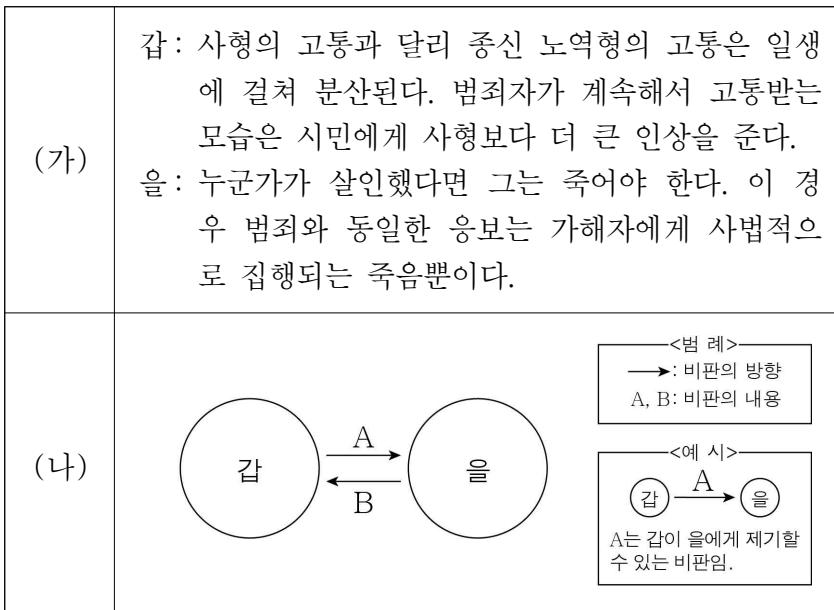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다.
을: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회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절대 빙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로 이어진다.

- <보기>
- ㄱ. 갑: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빙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 ㄴ. 갑: 해외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ㄷ. 을: 해외 원조의 결과로 해외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빙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종신 노역형보다는 사형이 더 유용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② A: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이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 ③ A: 사회적 선의 증진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④ B: 사적 보복은 응보법에 따를 경우에만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⑤ B: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됨을 간과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